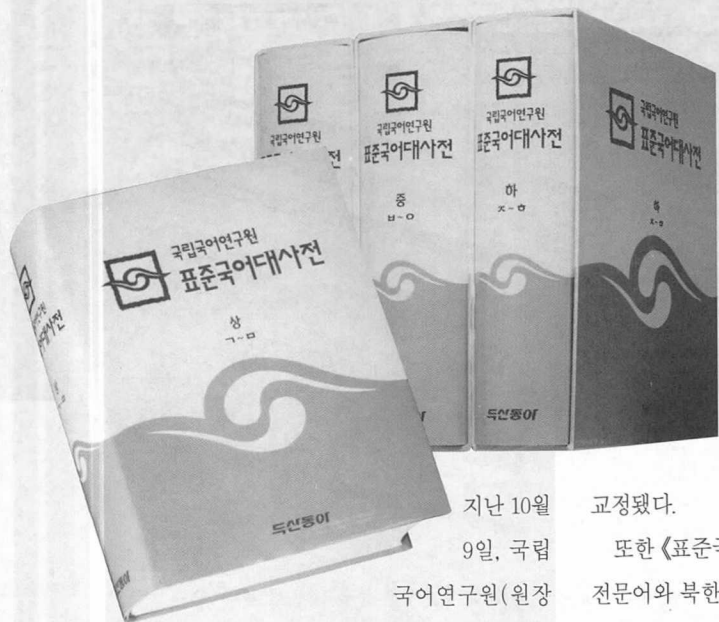


어문규정 구체화한 《표준국어대사전》 발행

8년동안 총 5백여명이 참여... 북한어 포함, 50여만 항목 수록



지금까지 발행된 사전들은 어문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서 많은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은 각 표제에 대해 맞춤법, 표준어규정, 띄어쓰기, 발음 등의 어문규정원칙을 적용, 과거의 혼란을 바로잡았다.

지난 10월 9일,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심재기)은 8년 동안의 사전편찬 작업을 마무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상)》(두산동아)을 발행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국어사전을 편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중권과 하권은 오는 11월 말 발간될 예정인데, 전체 7천3백쪽에 50여만 항목의 표제가 수록돼 있다. “지금까지 나온 국어사전 가운데 표제가 가장 많은 경우가 40여만 항목인 것을 감안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가 가장 많다”는 것이 조남호 학예연구관의 설명. 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국어국문학 전공자 200여명이 집필과 교열에 참여한 것을 비롯 총 5백여명이 동원됐고, 1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학예관은 “무엇보다도 일반 원칙만 정해져 있는 현행 어문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가장 주력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발행된 사전들은 어문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등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단어들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발음 등의 어문규정 원칙을 적용, 사정·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위표’는 ‘가새표’의 동의어로, ‘믿기다’는 ‘믿다’의 피동사로, ‘얼핏’은 ‘언뜻’의 동의어로

교정됐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준어 이외에도, 전문어와 북한어, 방언, 옛말이 수록됐는데, 전문어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120여명의 감수를 거쳤다. 북한어는 1992년에 간행한 《조선말대사전》을 참고해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남한과 다르게 표기하는 단어 7만개를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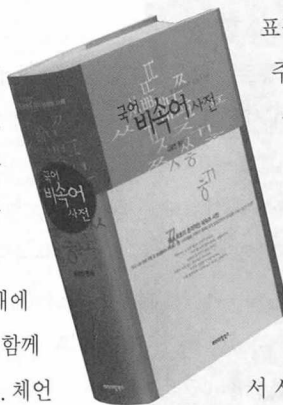
단어의 뜻풀이마다 단어의 쓰임새에 관한 정보와 단어가 사용된 예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도 이 사전의 특징. 체언에 조사가 결합되는 형태와 용언의 활용형을 발음과 함께 보여줄 뿐 아니라, 용언이 어떤 문장 구조를 이루는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예컨대, ‘닭’에는 ‘[닭]’과 ‘[닭이(달기), 닭만(당만)]’이라는 정보가, ‘넓다’에는 ‘[넓따]’와 ‘[넓어, 넓으니, 넓고(널꼬), 넓지(널찌)]’의 정보가 제시된다. 아울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어가 문헌에 처음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변천과정 등 어원의 정보가 보완되고, 만여 점에 이르는 컬러 삽화가 곁들여졌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올해말까지 사전 편찬과정과 사전편찬을 위해 만들었던 지침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

비속어만 수록된

《국어비속어사전》도 발간돼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사전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비속어만 수록된 《국어비속어사전》(프리미엄북스)이 출간돼 화제다.

편저자인 김동연 교수(강남대 어문학부 교수)는 “비속어는 단순히 욕이나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며,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비속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그 자체가 의의”라고 말한다.

1천1백쪽 분량에 8천여개의 표제어가 수록된 《국어비속어사전》은 문학작품과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비속어를 구체적인 용례와 함께 정리하고 있다. 예컨대, ‘가오’를 “[속되게]체면. ‘동철이 너두 이 바닥에서 가오가 서잖니? ...’”, ‘가가 뒀다’를 “‘닷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로 설명하는 식이다.

김교수는 표제어를 선정하기 위해 소설과 잡지, 신문기사와 인터넷 웹진 등을 살폈으며, 일선 고등학교에서 만든 청소년 속어모음과 전문집단의 은어모음 등을 수집하기도 했다.

— 김정은 기자